

야곱의 공변된 편지편지

방울이 갑나대인의 계흐편지

간나래인의 세호편지

THE CHURCH AT HOME AND ABROAD.

VICE-REV. H. A. NELSON, D.D., Residence, 204 South Forty-first Street
Philadelphia, Pa.

BUSINESS SUPERINTENDENT—JOHN A. BLACK.

OFFICE—Publication House, 1334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a.

MAILED TO EACH SUBSCRIBER FOR \$1 PER YEAR.

The cash must in all cases accompany the order. The Assembly's Committee directed that no subscriptions be placed upon the books until paid for. Business Correspondence and remittances by draft or postal order should be addressed to **J. A. BLACK, Business Superintendent**.

Manuscripts offered for publication or relating to the editorial conduct of the magazine should be addressed to the Editor.

The Editor's office is in Room 9, Publication House, 1334 Chestnut Street. He may be found in that room from 9 A.M. to 12.30 P.M. after that time, at his residence, 204 South Forty-first Street, Philadelphia, where he does most of his writing. Friends and the friends of THE CHURCH AT HOME AND ABROAD are invited to call.

SUBJECTS FOR MONTHLY CONCERTS

AROAD.

—General summary in connection with

—Asia.

—Africa.

—Mexico and Central America.

—India.

—Sum and Laos.

—Africa.

—Indians, Chinese and Japanese in the

—Africa.

JANUARY.—The evangelization of

FEBRUARY.—The Indians of the

MARCH.—Missions in the

APRIL.—The work.

10029586



갈나대인서

데일장

- 바울

스도는 사람�이 보낸 이

노니 만일 사람의 전호는 복음이
은 복음과 다르면 멸망하리라 + 이제 내가

사람의게 빼케 하겠느냐 하느님때

도 죄

도 아니오 사람의 세운 이도 아니오 예수

겟느냐 업지 사람의 깃버 흠을 구호

크리스도와 그 죽은 가온티셔 다시 살니신

름을 깃부개 하면 크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바지 하느님이 세우신 스도 + 라

모든 ○ + 형데들 + 너희께 말 하노니 내가 전

형데들과 곳치 갈나대 교회에 편자 하노니

할복음이 사람의게 써 난 거시 아니라

하느님 아바지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내가 사람의게 밟은 것도 아니오 또 비혼

의 주신 은혜와 편안함을 너희께 원 하노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크리스도께서 묵시

죄를 위하야 몸을 봉리사 이 악한 세상에

하느님의 우리를 건지랴 하셨시니 ○ 영광을 돌녀 교회를 심히 팝박 하야 해롭게 칭고 + 내

멘 ○ * 크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

가전에 유대 교 위 흠을 본국 동류 보다 더

하느님씨 영제 토록 잊기를 원 하노라 아

교회를 심히 팝박 하야 해롭게 칭고 + 내

이곳치 속히 비반하고 다른 복음 종참

호야 조상의 전호 글을 더 열심으로 저혔

을 이상히 넉이 노라 이 거슬 복음이 아니

나를 떼시고 또 은혜로 부르사 + 깃거히

라 다만 엉던 사람들이 너희를 어지럽게

그 아들노 내게 나라내여 이방에 전도 하

하야 크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흠이니

게 하셨으니 내가 곳 세상 사람파 의론하

전호는 복음이나 전호 복음과 다르면 멸망

보다 몬저 스도 된 자를 보지 아니 하고

흐리라 내가 전에 말 하고 지금 또 말 하

아라베로 갖다가 다시 다메션으로 도라

셔 삼년 만에 베드로를 보라고 예루살

렘에 가서 흠뻑 보름을 류흘식

주 의 아

가 흥상 너희 가온덕 잇게 흠이라

오 야고보 밟고 다른 속도는 보지 못 흐엿

스니 내 편지 흐는 거손 하느님 압회

에 여간 일홈 잇는 사람은 누구던지 나으

거조 말이 업노라 그 후에 내가 수랴와

길니개 따에 나르니 그 사를들은 내게

유대에서 크리스도

을 휴치 아니 흐시느니 그 사를들은 내게

를 멋는 교회가 아직 내 낫출 보지 못하고

유익 흠이 업스티 도로혀 우리가 할례 발

을 오직 전에 더희를 팝박 흐던 자가 해롭

지 아니 흔 사를의 게 복음 전 흐기를 베드

게 흐던 도를 전훈다 흠을 듯고

로 가 할례 밟은 사를의 게 전 흔파 웃체 흔

연고로 영화를 하느님 흠 돌니더라

을 보니 베드로의 게 감동 흔사 할례 밟은

데 이 장 열네 흔 후에 무시를 엇고 바

자의 속도를 숨으신 이가 또 흔 내게 감동

나바와 콧치 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회에 기동 콧흔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이

시 올나가서 이방에서 전훈 복음을 유명

호사 이방 사를의 속도를 숨으신지라 교

이 헛 되지 안게 흠이라 나와 콧치 잇는

우리게 주신 은혜를 보고 나와 바나바의 게

되도는 비록 헬나 사를이나 억지로 할례를

난훈 사를을 성각 흐게 흐니 이는 나도 힘

밧게 흐지 아니 흐엿스니 이는 거조 형

써 흉흐라 흠이라 ○ 그 후에 베드로가

데 두어 사를이 그만히 드러와서 우리가

안드레에 갖술 때에 척망 흘 일이 잇기로

크리스도 예수를 멋고 스스로 흔을 옛

내가 면척 흠은 야고보의 보낸 사를이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져 흐되 우리가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 사를과 먹다가

오매 할례 밟은 사람을 두려워 호야 곳 피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산거시 내가 산거시
호야 나가니 ^{十三} 그 다른 유대 사람도 더를 썬 른 거죽 일을 향고 바나바를 썬여 또 혼 본방에 흐는지라 ^{十四} 내가 곳 복음 촘 리치셔 살미니 나를 손랑 향고 위호야 몸을 브를 쪘지 아니 흠을 보고 여러 사람 암해셔 리신지라 ^{十五} 우리 가 하느님의 은혜를 져보 베드로 드려 날으되 네가 유대 사람으로 이방 풍속을 쪽고 유대 사람과 끼지 아니 흐면 엇지 이방 사람으로 유대 사람을 쪽 베 호랴느냐 ^{十五} 우리는 본리 유대 사람이 오 이방 죄인이 아니라 ^{十七} 사람들이 법을 칙혀 올케 됨이 아니오 예수 크리스도를 수를 멋어서 올케 될줄을 아는 고로 크리스도 예 썬 눈 암회 예수 크리스도 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거가 불히 잇거늘 누가 너희를 고져 흠이오 법을 칙힘은 아니니 법을 칙은 거시나 복음을 듯고 멋어 밟은 거시나 하는 거스로는 올케 되는 사람이 업느니라 ^三 너희가 이 콧치 어리석으나 성신으로 시 ^四 만일 우리가 크리스도를 멋어 올케 되 작 호였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못초겟는니 라다가 죄를 범하면 크리스도 죄를 짓게 흐심이냐 아니라 ^{十八} 만일 헐엇던 거슬 다 헛 일이 아니냐 그 촘 헛일 일진저 성신을 시 세우면 내가 날노 죄인이 되게 흠이니 라 ^{十九} 내가 법을 인호야 법에 죽음을 하느 님 암희 살미니 ^{二十} 내가 크리스도와 끼치 음을 듯고 멋음으로 힝호셨는니 복

리지 못 흐리니 만일 법만 칙혀 올케 되면 크리스도 썬서 공연히 도라가셨느니라

예 삼장 - 어리석은 갈나대 사람들아 너

희 눈 암회 예수 크리스도 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거가 불히 잇거늘 누가 너희를 썬 너희가 성신을 밟은 거시 법을 칙혀 밟은 거시나 복음을 듯고 멋어 밟은 거시나 ^三 너희가 이 콧치 어리석으나 성신으로 시 ^四 만일 우리가 크리스도를 멋어 올케 되 작 호였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못초겟는니 라다가 죄를 범하면 크리스도 죄를 짓게 흐심이냐 아니라 ^{十八} 만일 헐엇던 거슬 다 헛 일이 아니냐 그 촘 헛일 일진저 성신을 주샤 너희 가온더서 이상흔 자최를 힝호신 ^{十九} 내가 법을 인호야 법에 죽음을 하느 이가 너희가 법을 칙힘으로 힝호셨는니 복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어서 올케 되엿스
니 ^七 이 럴 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
함의 조손 인줄을 알 거시 니라 ^八 하느님 씨
서 이 방 사람을 그 믿음으로 올케 되게 하
심을 미리 그르치샤 아브라함의 게 복 음을
전하샤 성경에 날으샤 터 일만나라이 너를
인호야 복을 밟으리라 ^九 호셨스니 ^九 그런고
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믿은 아브라함과
곳처복을 밟느니라 ^十 무릇 률법 쫓는 사
름들은 죄를 납으리니 성경에 날으샤 터 흔
상 률법에 크리스도 흠 대로 다 준 험 치 못
하는 사람은 죄를 납는다 ^{十一} 성경 ^{十一} 만일 그 괴업이 률법을
에 날으샤 터 올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호셨스니 사람이 률법으로 하느님 암희 올
게 되지 못 흘거시 붉은지라 ^{十二} 률법은 믿
는 터 잇지 아니 호고 오직 률법 직해는 사
름은 그 아래 산다 ^{十三} 호셨스니 ^{十三} 크리스도
미서 우리 죄를 디신 납으샤 우리를 속호
야 률법의 죄 납음을 면호게 ^{十四} 그려면 률법이 하
으샤 터 나모에 달난 자가 다 죄를 납었다
호셨느니 ^{十五} 아브라함의 복은 크리스도 예

수를 인호야 이방 사람의 게 믿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허락 호신 성신을 엊케 호셨느니
라 ○ ^{十五} 형데들아 내가 사람의 풍속 대로
호지도 못 호고 더 호지 못 호느니 ^{十六} 아브
라함과 그 조손의 게 허락 호신 거손 여러
조손을 그르치심이 아니오 그 조손의 흔
사람을 그르치심이 아니 곳 크리스도 라 ^{十七}
내가 또 날으노니 하느님의 미리 명호신
언약이 스빅 삼십년 후에 률법으로 능히
여러가지로 날으노니 하느님의 미리 명호신
호는 사람은 죄를 납는다 ^{十八} 만일 그 괴업이 률법을
직해 엇으면 허 ^{十九} 그러나 하느님이 아브라
함의 게 허락 호야 주신 거시 니라 ^{十九} 그런
즉 률법은 무엇제 쓰겟느냐 죄를 위호야
베프려 허락을 밟은 조손 오시기를 기드려
런스를 쫓초 중보의 손을 비려 전호였스니
중보는 호나 만위호지 아니 호니 하느
님이 그 호나 히시라 ^{二十} 그러면 률법이 하
는 님의 허락 호신 거슬 거스리느냐 아니라

을 켜 되려니와 三 성경에 사물들이 다 죄
가 온다 잇다 흐엿스니 허락 흐신 거슬 예
수 크리스도를 멋음으로 멋는 자의게 주시
느니라 ○ 二 ○ 멋는 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
가 률법 아래 갖치여서 멋는 도 나타나기
를 기드렛스니 二 ○ 률법이 선성이 되여 우
리로 크리스도께로 나아가 멋음으로 올케
되게 흐엿거니와 二 ○ 이제 멋는 도가 나타
낫스니 다시 선성 아래 잇지 아니 흐리라
너희들이 크리스도 예수 멋음으로 다하
느님의 아들이 되엿스니 二 ○ 세례를 밟고
크리스도께로 온 사람들은 크리스도를 웃님
듯 흐엿스니 二 ○ 유대 사람이나 헬니 사람
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사나희나 너편네나
업시 너희들이 다 크리스도 안에 잇셔 흐
나히 된지라 二 ○ 너희가 크리스도의게 속
흐면 아브라함의 조손이 되여 허락 흐신
대로 괴업을 니으리라

파 다름이 업스니 二 ○ 아바지의 명 흐신 때
서지 선성파 세간 맛흔 사람의게 복종 흐
하는 것 고치 二 ○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풍
속에 얹미여 종이 되엿더니 二 ○ 때가 추매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내여 네인의게 탄성
흐샤 률법 아래 잇게 흐샤 二 ○ 률법 아래 잇
목을 엉내 흐셧스니 * 임의 아들이 되매
하느님이 그 아들의 성신을 보내여 우리
모임 속에 두어 아바를 빅르니 아바지라
이 굿흐면 아들이 오 종이 아니니 아들이
되엿손즉 하느님의 은혜로 괴업을 엉엉느
나라 ○ 二 ○ 이전에는 하느님을 아지 못 흐
야 하느님 아닌 거슬 밟드러 섬기더니 二 ○ 이
제는 하느님을 알뿐더러 하느님의 아심이
되엿거늘 엉지 흐야 다시 악하고 천호 풍
속을 좁차 종이 되랴 흐느냐 二 ○ 너희가 날
과 들파 절괴와 희를 직하니 二 ○ 내가 너희
를 위흐야 공연히 수고 만 흘싸 흐노라 ○
二 ○ 형데들아 내가 너희와 고치 흐니 너희
도 나와 고치 흐기로 원 흐노니 너희가 내
아들이 주인이 될터이나 어렷을 때에는 종

제 잘 못 혼 거시 엄느니라 ¹³ 너희도 알
거니와 내가 처음에 연약 혼 몸으로 너희
게 복음을 전하나 ¹⁴ 내 몸이 약혼 거슬
너희가 업수히 넉여 봉리지 아니 흐고 접
되 흐기를 랜스와 크리스도 예수 그치 흐
엿더니 ¹⁵ 너희 이전 복이 이제 어리 있는
나 증거 흐노니 흘수 대로 네 눈을 빠여
나를 주라라 ¹⁶ 내가 촘리처 말 흠으로 너
희 원슈가 되느니 ¹⁷ 그 사름들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호는 거시 토흔 쪘서 아니오 너
희를 리간 봇쳐 더희를 열심으로 위호
흐이라 ¹⁸ 토흔 일을 열심으로 위호는 거
손 흥상 도하니 우리가 너희를 되호였슬
때뿐 아니니라 ¹⁹ 소조들아 너희 속에 크
리스도 잇기 산지 너인이 히산 흐는것
치 다시 너희를 위호야 슈고 흐노니 ²⁰ 내
가 너희를 의심하는 고로 이제 너희를 터
면호야 말을 변호리니 ○ ²¹ 내내 말 흐
라 를법 아래 잇고 시분 사름들아 법을 듯
지 못 흐였느니 ²² 성경에 날이 사디 아보
라함이 두 아들이 잇소니 흐나흔 종첩이

나코 흐나흔 부인아 나핫스니 ²³ 종첩의
제는 정욕으로 나코 부인의 제는 허락 흐심
으로 나흔지라 ²⁴ 이 거시 비유니 두어 언
약이라 시나 산에서 전호야 사름으로 좋을
삼앗스니 곳 아가이라 ²⁵ 이 아가는 아라배
의 시나 산이니 즉금 예루살렘과 그흐니
더와 더희 조식들이 종이 되엿고 ²⁶ 오직
우희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되지 안코 우
리 어머니니 ²⁷ 경에 날으샤되 조식 비지
못 흐고 낫치 못 혼 부인아 즐거워하고 히
산에 어려움을 지내지 못 혼이는 깃거히
부르라 지아비 엄는 사름의 조식이 있는 사
름의 조식 보다 만다 흐였스니 ²⁸ 형례들아
우리도 이삭과 그치 허락 흐신 아들이라 ²⁹
그 때에 정욕으로 나흔 사름이 성신으로
나흔 사름을 팝박 흐더니 이제도 그러 흐
도다 ³⁰ 그러나 성경에 무어시라 날으느뇨
좋파 그 아들을 내여 쪽초라 종의 아들은
부인의 아들파 흠썩 괴얼을 낫지 못 흐리
라 흐였스니 ³¹ 형례들아 우리는 종의 조

예호장 - 크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시쥬

재 흑색스니 굽재 서서 다시는 종이 되는
멍에를 메지 마라 = 드르라 나 바울은 너
희게 말 흑노니 만일 할례를 밋으면 크리
스도 = 유익 흠이 업슬 거시오 = 또 모든
할례 밟은 사람의 재 증거 흑노니 맛당히
원법을 치힐지라 = 누구던지 를법으로 올
케 흐랴 흐면 크리스도 = 유익 흠이 업고
온총이 묻혀지느니라 = 우리 가 성신의 감
동 흑심을 힘 넓어 멋음으로 올케 됨을
라노라 = 크리스도 예수의 재는 할례 밟고
아니 받음이 유익 흠이 업고 멋어서 소랑
홈으로 힝흐이 유익 흐니 = 너희가 잘 힝흐
는 거슬 누가 막아서 촘 리치를 거스리게
흐더냐 = 이 권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가
식힌 거시 아니라 = 져은 누록이 왼 덩이
에 퍼지느니라 = 내가 쥬를 인흐야 너희들
이 다룬 모임을 품지 안끼를 라 노니 너
회를 요동케 흐는 이는 무론 누구던지 형
벌을 뱗으리라 = 형데들야 내가 이제 씨

지 할례를 전호면 웨 이제 서자 펫박을
벗는냐 그러 호면 십조가를 실현 호자
니 호리라 ⁺² 너회를 어지럽네 호는 자들
이 스스로 선허지 기를 원 호노라 ○ ⁺³ 협
데들아 너희들을 조쥬 흠으로 부르셨느니
정욕을 콧차 조쥬 호지 말고 소랑 흠으로
서로 섬기라 ⁺⁴ 원 률법은 일언이 폐지호
고 늄 소랑 호기를 몸 조치 소랑 흠이니
⁺⁵ 만일 서로 상호고 해호면 멀망 훌막 두
려워호라 ○ ⁺⁶ 내 널○ 노나 성신을 콧차
힝호라 그러면 정욕을 콧지 아니 호리라
거스려 들이 서로 티덕 호야 호고시분대
로 못 호개 호느니라 ⁺⁸ 만일 성신의 인도
호심이 되면 률법 아래 잇지 아니 호리니
⁺⁹ 육신의 일은 복히 나타나는니 간음과
더러움과 석탐 호는 것파 ⁺¹⁰ 우상 위호는
것파 무당의 술업과 원슈 되는 것파 싸호
는 것파 두과 호는 것파 성내여 다투는
것파 편당 되는 것파 이단파 ⁺¹¹ 식과 호는
것파 채호는 것파 방당 흠과 조흔 거시란

내가 전에 말 흐엿고 지금 또 말 흐노니
이 거술 힝흐는 자는 하는님 나라를 엇지
못 흐리라 ^(二) 성신의 열미는 스랑 흠파 깃
버 흠파 화평 흠파 촘음파 조비 흠파 인조
흐파 착 흠파 멋음파 ^(三) 온유 흠파 존절 흠
이라 이와 그치 흐는 사름은 법에 잇지 아
니 흐니라 ^(四) 크리스도 예수의 사름은 그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았으니 ^(五) 우
리들이 성신으로 살았으면 성신으로 흉
고 ^(六) 서로 노엽게 흐고 두고 흐야 헛된
영화를 담흐지 말자

매 륙 장 - 형데들아 사름이

무숨 죄를
납거든 너희 성신 밟은 자들은 온유 흐 ^(一)
옴으로 바른 대로 인도 흐고 스스로 고혹
흘싸 두려워 흐라 ^(二) 너희가 크리스도의 법
을 온전히 흐야 ^(三) 너희가 스스로 속 빛을
사람이 못 나고도 잘 난데 흐면 스스로 속 레를
이는 거시니 ^(四) 각각 조괴 흉설을 숨히라
이곳처 흐면 깃분 거시 조괴의게 잇고 놔
의게 잇지 아니 흐니 ^(五) 사름마다 각각 제
이 거술 위 흐야 나는 세상이 십자가의 못

직분을 담당할 거시니라 ○ ^(一) 도를 비호는
사름은 그르치는 사람의 배 모든 데 흐 거는
것로 공궤 흐라 ^(二) 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하는님은 만홀이 녀이지 못 흐리니 사름이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三) 데 정욕으로 심은
자는 정욕으로 거두어 멸망하고 성신으로
심은 자는 성신으로 거두어 거두어 영성 흐리니
착한 것 흉기 끼울니 말고 폐하지 아
니 흐면 땐가 나른즉 거두리라 ^(四) 그러한즉
여러 사름의게 착한 일을 흉 되 주를 멋
는 사름의게 더욱 흐 거시니라 ○ ^(五) 내 손
으로 너희게 이리게 큰 글자로 편지 쓴 거
술 보아라 ^(六) 정욕으로 모양을 내 래 흐는
이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밟게 흠은 크
리스도의 십자가를 인 흐야 더희가 펫박을
슬 보아라 ^(七) 정욕으로 모양을 내 래 흐는
발을 싸 두려워 흠이라 ^(八) 더희가 할례를
밟고 도 법을 직하지 아니 흐며 너희로 할
친찬을 밟고 져 흠이라 ^(九) 내가 자랑 흠 거
손 우리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니
내가 전에 말 흐엿고 지금 또 말 흐노니

박힌 거스로 알고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못박힌 거스로 아느니 ^{+五} 할례 뱗고 아니
밧은 거손 요긴함이 업고 오직 서로 됨이
라 ^{+六} 이 도를 준행 흐는 자와 하느님이
빠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 흠과 불상히
넉이심 엇기률 원 흐노니 ^{+七} 이 후 브터
나를 요란 케 마라 예수를 위흐야 내 몸에
흠히 잊노라 ^{+八} 형데들아 우리 쥬 예수 크
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드온에 잊기률 원
흐노라 아멘

1897

주 강 식 일 천 팔 빅 구 삼 칠 년

야 곱의 공번된 편지

대 조 선 기 국 오 빅 륙 년 명 유

야고보의 공변된 권지

예일장 - 하느님과 쥬예수 크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혜여진 열두 지파의 대 문안호
노라 ○ 내 형데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다 깃불을 삼으라 ^四 너희
믿음의 헌달호는 바는 촘는 거슬 나게 호
는 줄 알미러라 ^四 오직 촘는 거슬 온전케
힝흘 거심은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해야 ^五 조
곰도 부족흘이 잇거든 뭇 사름의 대 두더히
해자 뿐족흘이 잇거든 뭇 사름의 대 두더히
주시고 구짖지 아니 ^六 하느님때 구호고
라 곳 주시리라 ^七 오직 믿음으로 구호고
조곰도 의심하지 말나 대개 의심 잇는 자
는 바름으로 밀나고 움죽이는 바다 물결
그릇호니라 ^七 이 그릇 사람은 무어서던지 주
색 엉기로 성각호지 말나 ^八 두 모임을 품는
자는 그 모든 흥흘에 명흐들이 업는니라 ○ ^九
는 존 형데는 저희 놓하짐으로 써 조랑호고
+ 오직 풍성호 형데는 저희 는조짐으로
써 자랑을 거심은 저희가 들 콧과 콧차지

나가리라 ○ 대개 희가 나서 쪽이 매 풀이
모르고 뜻치 떠려져 그 모양의 아름다온
어서 업스리니 이 와 웃치 풍성호 자의 흥
호는 바가 쇠잔호리라 ○ ○ 시험을 맛나셔
총는이는 복 잇는 자丨로다 대개 시험호
후에 쥬를 스랑호는 자의 배 허락호신 영성
의 면류관을 엇으리라 ○ ○ 사름이 시험을 보거
든 하느님씨로 시험을 보았다 호지말지어
다 대개 하느님은 악으로 시험을 보 쇠지도
아니 호시고 사름을 시험호시지도 아니 호
시느니라 ○ ○ 오직 각 사름이 시험을 보는
거손 제 육심에 셔을녀 미혹 호여지느니라
육심이 잉티호 후에 죄를 낫코 죄가 자
룬 후에 죽음을 낫느니라 ○ ○ 내 스랑호는
형데들아 스스로 속이지 말나 ○ ○ 모든 셔
로 율 베프는 것파 모든 온전호 은혜가 우호
느니 아바님은 변역 호심도 업스시고 또 호
움족이는 그림조도 업스시니라 ○ ○ 더丨 ○
괴 뜻술 조차 촘 도로써 우리를 내샤 그

지으신 만물 중에 처음으로 밟는 열미가 업는 정성은 부모 업는 자와 파부를 환
되게 흐시느니라 ○ 十九 내 스랑흐는 형례들

난 중에 도라보고 조괴를 삼가 직혀 세속
에 무드지 아니 흐는 거시나라

아이 거슬 아는 거시니 사람마다 둑기는
속히 흐고 말 흐기는 더더 흐고 노 흐기는

더더 흐라 二十 대개 사람의 노 흄은 하느님

의 올흐심을 일우지 못 흐느니라 二一 그런고

모든 더러온 것과 그득한 악독을 브리

고 온유함으로써 믿음에 심은 도를 밟으라

이는 능히 너희 영혼을 구휼 바니라 二二

네 스스로 속아 듯기 만 흐지 말고 도를

횡흐는 자 一 되여라 二三 대개 도를 듯고 횡

차 아니 흐는 자는 비유컨대 사람이 레경

으로 꼬리꼴을 보는 것 二四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엉더嚅을 곳 나즘이니라

가서 그 모양이 엉더嚅을 곳 나즘이니라

오직 꼬리흐는 온전이 갖촌 를법을 들

슬피는 사람은 곳 듯고 낫는 자 一 아니오

다만 횡흐는 자 ニ 이 사람은 그 횡흐으

로 복을 엊으리라 二五 아모나 스스로 정성

되다 흐고 그 혀를 자갈 먹여 제 믿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정성됨은 헛 거시나라

내 아바님 하느님 암희서 정결하고 흠

엄는 정성은 부모 업는 자와 파부를 환
리스도 영광의 주를 밟어 외모로 써 사람을
취흐지 마라 二六 만일 금 가락지를 제고 아
름다온 의복을 납은 사람의 너희 회당에
드러오며 뜨거 가난한 사람의 해여진 의복
을 납고 드러오면 二七 너희가 아름다온 의복
님은 자를 도라보아 二八 너희가 아름다온 자
리에 안지쇼셔 흐고 뜨 가난한 사람의 개
말흐야 글으덕 거리 셋던지 내 발등상 아
래 안지라 흐면 二九 곳 너희 믿음을 속에 편벽
되고 악흔 성각으로 써 판단흐는 자 一 되지
아니 흐느니 二 내 스랑흐는 형례들아 드
를지어다 하느님씨셔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자의게 허락 흐신 나라의 후수가 되게 아니
흐셨느뇨 三 너희들이 도로 혀 가난한 자를

팔시 흐였시니 벽자는 너희를 선드립게 흐

며 너희를 죽을고 법관에 나르지 아니 흑 일용을 랑식이 업는다 ⁺⁶ 너희 중에 누구던
느뇨 ⁷ 너희를 부르는 아름다운 일홍을 더지 ⁸ 곧으니 평안이 가서 덥고 비 부를지라
희가 비방호지 아니 흑느뇨 ⁹ 너희가 만일 흑고 너희 몸에 쓸거슬 주지 아니 흑면 무
성경에 괴록호 바니웃 스랑 흑기로 네 몸
파고치 흑라 흑신 지극호 법을 온전이 흑
면 잘 흑는 거시어니와 ⁹ 만일 너희가 외
모로써 사람을 죄우면 죄를 짓는 거시니 률
법으로 범죄호는 자를 명호리라 ⁺ 대개 누
구던지 온 률법을 직희다가 흑나흘 범호면
모도 범호는 거시라 ⁺ 간음 흑지 말나 흑
신이가 또호 살인 흑지 말나 흑엿신죽 너
희가 비록 간음은 업스나 살인 흑이 ¹⁰ 잇스
면 또호 률법을 범호 자 되였느니라 ¹¹ 너
희가 말파 흑홍이 조주장호는 률법으로
장호 심판 밧을 자와 고치 흑라 ¹² 대개 이
궁을 베포지 아니 흑는 자는 익궁 업시 심
판을 밧을 거시니 오직 익궁이 심판을 이
괴느니라 ○ ¹³ 내 형데들아 만일 사람에 멋
음이 있다하고 흑홍이 업스면 무슴 유익홍
이 잇스라 오아 멋음이 능히 조괴를 구호
겟느뇨 ¹⁴ 만일 형데나 누의나 몸을 벗고

할용을 랑식이 업는다 ⁺⁶ 너희 중에 누구던
지 ¹⁵ 곧으니 평안이 가서 덥고 비 부를지라
희고 너희 몸에 쓸거슬 주지 아니 흑면 무
수 ¹⁶ 흑홍이 업스면 멋음이 있고 나는 흑
홍이 잇스니 네 흑홍이 업는 멋음을 내게
뵈이면 내 흑홍으로써 내게 내 멋음을 뵈
이리라 ¹⁷ 네가 하느님께서 오직 흑분 이신
줄을 믿으니 잘 흑는도다 귀신들도 또호
밀고 셸자니라 ¹⁸ 허란호 사람아 너희 흑
홍이 업는 멋음은 죽은줄을 알고져 흑느나
¹⁹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 올홍이 된 거시 흑홍으로 말미
암이 아니뇨 ²⁰ 그 멋음이 흑홍으로 되고
또 흑홍으로써 멋음이 온전케 되였심을 보
느나 ²¹ 성경에 날아신 거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며 일노써 올홍이 되고 하느
님의 벗이라 흑신 말솜이 응호였느니라 ²²
일노 보건대 사람이 올홍 되는 거시 흑홍
으로써 인홍이오 멋음으로 만인홍이 아니

라 二五 뜨 일와 콧치 기성라합이 스자루를 영 는 디옥으로 말미암아 불 놋느니라 七 여러
접호야 다른 길노 드라가네 호옛시니 향함 가지 즘승파 는 는 석와 버러지와 물고기로
으로 말미암아 올흘 됨 거시 아니나 二六 령 다 제어 호야 사름의궤 제어호옛시디 八 오
흔이 업스면 몸이 죽은 것 콧치 향함이 업 직혀는 사름이 제어흘 수 업서 이에 쉬지
스면 멋음이 죽었느니라

데 삼장 - 내 형데들아 여러 스승이 되

지 말나 그려면 우리가 심판 밟음이 더욱
중동을 알미라 二 대개 우리가 다 실슈 흠
이 만호니 만일 말노 실슈 업는 자 잇스면
온전호 사름이오 능히 온 몸 도 구속호리
라 三 사름이 몰 입에 조갈 먹이는 거순 순
좋게 흠이오 뜨호 그 온 몸을 어거호는 거
시오 四 뜨 비가비록 삼히 크고 광풍으로
요동호나 조고마호 치로써 어거호는 거
스공의 뜻 대로 흠이니 五 뜨호 이와 콧치
혀가조고마호 지례로 디 크게 자랑호며 셉
히 심히 만호나 적은 불에 살오느니 六 혀
는 곳 불이오 악함이 셰상 콧치 큰지라 혀
가 우리 지태 중에 잇서셔 온 몸을 더럽히
고 또 흔 런성의 박회를 불살오느니 이 혀
아니오 오직 셰상파 정육파 마귀에 봉천

는 디옥으로 말미암아 불 놋느니라 七 여러
아바님을 찬송하고 뜨 일노씨 하느님의 형
상대로 내신 사름을 저주호느니 九 + 혼
으로 찬송파 저주가 나옴이라 내 형데들아
이것들이 맞당치 아니 호니라 十 새암이 혼
구명으로 들고 쓴 물이 나오겟느뇨 十一 내
형데들아 무화파 나무에 감람 열미를 빛칠
수 잇스며 포도 나무에 무화파를 빛칠 수
있겟느뇨 이와 콧치 쓴물이 든 물을 내지
못호느니라 ○ 十二 너희 종에 뉘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뇌 지혜의 온유함을 선호 향적
으로 향함을 뵈여라 十四 너희 무온 가온디
독호 식괴와 달辱이 잇스면 자랑호지 말고
도록 흔 춤 리처를 디덕호야 거짓 말 호지 말
나 十五 이 뜨호 지혜는 우호로 조차 옴이

거시니라 + 六 대개 쇠과 호고 닷도는 곳에 요
란 흠파 모든 악흔 일이 잇느니라 + 七 오직
우흐로 브러 오는 지혜는 몬저 씨긋 호고
후에 화평호며 온양호고 유순호며 불상이
넉임파 선호 열미를 그득이 호고 편벽되
이보지 말며 거즈 호지 아니 호느니 + 八 또
화평호 제 하는 자는 올 흠이 되는 열미를
화평호 으로 심으니라

예수장 -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

되로 조차 오느뇨 **너희** 빅례 중에 정욕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오지 아니 **흐느뇨** **너**
희가 욕심 **흐여도** 엇음이 엄고 **너희**가 죽이
고 **식괴** **흐여도** 엇지 못 **흐고** **너희**가 닻도
싸화도 엉음이 업는 **거손** 구호지 아니
함이오 **너희**가 구호여도 엇지 못 **흐는**
거손 **너희**가 구호는 바를 욕심으로 쓰랴고
잘 못 구호이라 **간부**들아 **너희**가 세상에
벗이 되는 거시 하느님의 원슈가 되는 거
술 아지 못 **흐느뇨** 그런고로 **므로** 사름이
세상의 벗이 되고 쳐호는 자는 곳 조괴를

하느님의 원슈가 되게 乎느니라 ^五 너희가
성경에 말슴 乎신 바가 헛된줄노 아느
나 하느님써셔 우리 속에 거호제 乎신 신
이 식거를 품느뇨 ^六 오직 더우 큰 은혜를
우리제 주시느니라 그런고로 성경에 글으
샤티 乎느님이 교만흔 자를 물니치시고
은혜를 점손흔 자의제 주신다 乎시니 ^七 이
러므로 써 너희가 乎느님써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디역호라 곳 너희를 피흘리시오 ^八
하느님을 갖가히 乎라 乎느님이 죽흔 너희
를 갖가히 乎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각긋시
흐며 두 모음율 품는 자들아 모음율 정결
케 乎라 ^九 스스로 고롭게 乎며 이동흐며
울지어다 너희 우슴이 변흐야 이동이 되고
너희 즐거움이 변흐야 근심이 되게 乎리라
⁺ 쥬의 압희셔 스스로 점손흐라 쥬니 너희
를 놀히시리라 ^{+ -} 형데들아 피초에 乎방
흐지 말나 형데를 乎방 乎던지 평론흐는
자는 곳 률법을 乎방 乎고 평론흐는 자니
너희가 만일 률법을 평론흔즉 률법을
횡흐는 자니 아니오 오직 률법을 평론흐는

자니라 ¹² 를법을 세우고 심판 ¹³ 흐시는

이는 혼분이시니 능히 구호시며 능히 멀

흐시느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평론하는 자

는 누구냐 ○ ¹⁴ 우리 가 오늘이나 린일이

나 아모 성에 가서 일년을 류호며 무역하

야리를 엿겼다 흐는 자들아 ¹⁵

아지못 흐는도다 너희 성명이 무어서뇨

잠깐 뵈이다가 이에 엄여 지는 안개로다

¹⁶ 오히려 너희 말을 거순 쥬여서 즐기시

면 우리가 살기 도하고 이것과 더 것슬

흐겟다 흘거시어늘 ¹⁷ 너희가 교만한 거술

조랑 ¹⁸ 흐니 이런 자랑은 다 악이라 ¹⁹ 그런 기드리느니라

고로 선 흘줄 알고 도 힝치 아니 흐는 자

의게 죄가 되느니라

데오장 ²⁰ 부자여 네게 장초 림흘 고난

을 인호야 슬피 울고 통곡호라 ²¹ 너희 저

물은 썩어진 거시오 너희 웃손 좀 먹은 거

시오 ²² 너희 금파 은은 동녹 쓴 거시니 이

동녹은 너희를 디뎌 흐는 중거가 될 거시오

또 불조치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

이정이 ²³ 그득하시고 조비 흐시니라 ○ ²⁴ 너희 빛축

조막 날에 저물을 싸핫느니라 ²⁵ 너희 빛축

가는 세상에서 샤치호고 연락호야 너희가 너

희 모음을 죽이는 날에 기르느니라 ²⁶ 너희

희를 티덕지 아니 흐시느니라 ○ ²⁷ 그런고로

형데들아 너희가 쥬 강림호시기 서지

기리 촘으라 농부가 기리 촘아서 일쿄 느

준비 오기 서지 땀해셔 나는 귀훈 열민를

갖가지드려느니라 ²⁸ 쥬 강림호실 날이

흐라 ²⁹ 형데들아 서로 기리 촘고 모음을 굽게

심판 뱗기를 면호라 판심호시는 위가 문

압해 셋느니라 ³⁰ 내 형데들아 주의 일흘으

로 말호 선지들의 고성파 기리 촘는 거술

본방으라 ³¹ 우리 가 인내호 자를 복이 있

다 흐는지라 너희가 읍의 인내함을 드럿

고 쥬의 마즈막 호신 일을 보았시니 쥬는

내 형데들아 모든 것 중에 요긴호 거시에
밍세 흐치 말 거시니 하늘노 도 맹세 흐차
말며 짜흐로 도 맹세 흐치 말며 아모 거운
로 도 맹세 흐지 말나 오직 너희 말은 예
흘 거시어든 예 흐고 아니라 흘 거시어든

에 전도를 떠난 자 | 잇서 누가 도라서
죄인을 미혹 혼 길에서 도라
제 흐는 자 | 령흔을 죽음에서 구하고
흔 죄를 덥흘 거슬 알지어다

아니라 흐야 심판에 빠지기를 면흐라 ○⁺³
너희 중에 고성 흐는 자 | 잇거든 괴도 흐
며 즐거워 흐는 자 | 잇거든 교회의 장로
너희 중에 병 든 자 | 잇거든 찬양하고 ⁺⁴
룰 청흐야 그들이 주의 일홍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흐야 괴도 흐게흐라 ⁺⁵ 밋음의
괴도는 가히 병 든 자를 구원흐야 주씨셔
니르 갈 거시오 만일 죄를 범흐였으면 샤흐
심을 엊으리라 ⁺⁶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너희 곳치기론 서로 위흐야 괴도
흐라 올흔 사름의 고구흐온 힘이 만흐니라
룸이로티 비 아니 오기를 고절히 구흔죽
짜헤 삼 년 량월을 비가 아니 오고 ⁺⁸ 또
다시 구흔죽 하늘이 비를 누리고 짜헤 열
미를 내엿느니라 ○ ⁺⁹ 형데들아 너희

